우량채엔 뭉칫돈, 비우량채엔 찬바람… 회사채 시장 양극화

신용등급별 자금 조달 격차 커져
비우량기업, 투자금 확보 난항 겪어
BBB급 이하, 전년비 68.4% 감소


돈이 우량 회사채로만 몰리면서 회사채 시장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달 27일 KCC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2000억원)의 6.9배 자금이 몰렸다. 가산금리(스프레드)는 2년물이 개별 민평금리보다 9bp(1bp=0.0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3년물도 민평 대비 9bp 낮게 형성됐다. SK렌터카는 모집예정액(1000억원)의 4.27배 자금이 몰렸다. 하지만 3년물은 민평 대비 29bp 높게 형성됐다. 회사가 제시한 공모 희망 금리 범위인 ±30bp의 상단이다. 둘의 차이는 SK렌터카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다는 것이다.

돈이 우량 회사채로만 몰리면서 회사채 시장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채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채권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비우량 채권을 팔려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5일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 간 금리 차(스프레드)는 1.114%포인트였다. 이 스프레드는 작년 말만 해도 1.094%였다.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2017년 2월의 0.717%포인트다. 코로나 발병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2021년 3월에도 스프레드는 0.3%포인트대였다.

AA-와 BBB- 등급간 스프레드는 5.840%였다.

우량기업 회사채는 자금 블랙홀이다.

LG유플러스(AA+)는 지난달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1500억원)의 11배(1조7100억원)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특히 3년물 가산금리(스프레드)는 1350억원까지 민평 대비 3bp 낮게 형성됐다. 회사채시장에서 1000억원을 조달하려던 GS(AA0) 수요예측에는 13배(1조3700억원)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삼양홀딩스(AA-)는 모집예정액(1000억원)의 5.6배 자금이 몰렸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뭉칫돈이 몰린 고려아연(AA0)은 발행 금액을 두 배(3000억원)으로 늘렸다.

'A'등급에도 훈풍이 불었다. 파라다이스(A+)는 6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예측에서 3배가 넘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 롯데렌탈(A+)은 수요예측에서 총 644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모집액(1500억원)의 약 4.3배다.

금융권은 엇갈린 모습이다. 'AA-' 등급인 하나금융지주는 수요예측(3700억원)에 5150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한화생명(AA+)은 무보증 후순위사채 수요예측(4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최대 증액 발행 한도 8000억원에 못미친다. 발행금리도 희망금리 최상단인 연 5.30%로 확정됐다

증권사들은 '품절남'이다. NH투자증권은 수요예측(1300억원)에서 총 1조1800억원의 기관 자금이 몰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수요예측(3000억원)에서 총 1조8150억원의 수요를 확인했다. LS증권(A0)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700억원)의 7배(4640억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반면 'BBB' 이하 등급 회사채는 찬밥 신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랜드월드(BBB0)의 2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이후 두 달간 BBB급 이하 회사채 발행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BBB'급 이하 기업 가운데 공모채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은 10곳으로 최근 5년간 최저였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총 610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30억원) 대비 68.4% 감소했다. 기관투자가의 BBB급 회사채 수요도 감소했다. 올해 발행사 10곳 중 5곳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 이랜드월드는 200억원 모집에 180억원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주주환원 확대 기대

잔여 매입 가능 금액 총 15조5086억
자사주 매입 여력, 일부 대형주 몰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와 소각 의무화가 맞물리면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와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지난해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입 여력과 기존 보유 물량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돼 있어 기업별 참여와 소각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자사주 매입 잔여 한도가 있는 상장사는 181곳으로 집계됐다. 직접 취득 기업은 59곳,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기업이 122곳이다. 이들의 잔여 매입액은 총 15조5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잔여액이 13조4066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3개월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직접 취득은 신고한 물량 전체를 하루에 매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제한이 사라지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에서 매수 주문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 완화의 효과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SK하이닉스에 잔여 매입 한도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 여부도 주목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보유분도 2027년 9월까지 소각하거나 예외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기업들의 기존 자사주 보유 목적과 처분계획이 주주들의 평가를 받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상당한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주가 수준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며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곳도 있을 것이고, 매입 한도 완화는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 사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91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소각액은 총 61조7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소각액(24조910억원)의 2.6배에 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두나무,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최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경영시스템(AIMS·Artificial IntelligenceManagementSystem) 국제표준이다. AI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은 물론,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조직이 갖춰야 할 관련 정책과 책임 체계, 위험 관리,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등 전사적인 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두나무는 업무에서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 유출이나 부정확한 결과 활용 등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업비트 관련 업무에서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성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기술 환경과 업무 활용 방식의 변화에 맞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기존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업무연속성 관리 체계에 AI 경영시스템을 추가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업비트는 2018년 정보보안(ISO/IEC 27001), 클라우드 보안(ISO/IEC 27017),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ISO/IEC 27018) 등 3개 부문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2021년 개인정보보호(ISO/IEC 27701), 2023년 업무연속성(ISO 22301) 인증을 추가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번 ISO/IEC 42001 인증을 통해 보유한 ISO 인증은 총 6종으로 늘어났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부사장 3명·상무 3명 승진

2027년 정기 임원인사

삼성증권이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부사장 3명과 상무 3명 등 총 6명을 승진시켰다. 박종문 대표이사 체제는 유지된다.

삼성증권은 26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백승목·윤석모·한성주 상무를 부사장으로, 구자성·김준식·정명지를 상무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부사장 3명, 상무 3명 총 6명이 승진했다.

백 신임 부사장은 경영관리팀장과 경영관리담당을 거쳐 리스크관리담당을 맡았다. 2022년 리스크관리담당으로 상무에 오른 뒤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을 맡아 비대면 고객 자산관리 사업을 이끌고 있다.

윤 신임 부사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삼성증권에 합류한 리서치 전문가다. 에쿼티부문장을 거쳐 2018년 말부터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있다.

한 신임 부사장은 홀세일과 글로벌마켓, 에쿼티 등 주요 영업 부문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11월부터 S&T부문을 맡아왔다.

상무 승진자인 구 신임 상무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담당해 왔으며, 김 신임 상무는 프로젝트금융 등 대체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정 신임 상무는 리서치센터 투자정보 업무를 거쳐 채널 관련 전략을 담당해 왔다.

삼성증권은 "이번 임원인사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성과 우수 인재를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도 이날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이시완 대체투자부문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상무 승진자는 김경식 디지털마케팅본부장과 송명근 기관OCIO선임본부장 등 2명이다.

/신하은 기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6곳 직권말소

금감원, 99곳은 이미 폐업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 1863곳을 전수 점검해 부적격 업체 106곳의 신고를 직권말소했다. 대상 업체의 대부분은 폐업한 뒤에도 신고 명단에 남아 있던 곳이다. 투자자가 신고 여부만 보고 영업 중인 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비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폐업 정보와 관계기관의 법령 위반 이력을 확인하고,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말소 대상을 확정했다.

말소 사유별로는 폐업이 99곳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9곳, 5년 이내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받은 업체는 1곳이다. 사유가 겹치는 업체 3곳을 제외하면 실제 말소 업체는 106곳이다. 지난해 직권말소된 105곳과 비슷한 규모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일반적인 투자 의견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고객 한 사람의 사정에 맞춘 '1대1 투자자문'은 할 수 없다. 금감원 신고 사실이 자문 능력이나 수익률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이라면 임원도 재진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말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말소한 업체의 신고사항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삭제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